

함승희 대표 “레저 아이템 발굴, 실적의 비결”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영업이익 16%, 순이익 22.9% 증가. 강원랜드의 지난해 영업실적이다. 국내외 게이밍(카지노)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2015년 강원랜드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또한 22일 발표한 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시책평가'에서는 2등급(우수)을 받았다. 2013년, 2014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인 것과 비교하면 세 계단이나 상승했다. 강원랜드는 2014년 11월, 당시 8개월 넘게 공석이던 사장에 함승희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그의 대표 취임을 두고 '비전문가', '친박인사'라는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토종 복합리조트의 CEO로 그가 받은 첫 해 '성적표'는 기대 이상이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를 서울 역삼동 강원랜드 서울센터에서 만났다.



고객 체류시간 늘어나니, 매출은 저절로 반부패평가 등급 상승 비결은 인사 개선

강원랜드 만으로 사람을 모으는 건 한계 도시재생 통한 지역발전 이뤄내야 생존



-2015년 영업실적이 너무 좋다. 학점으로 치면 A+ 아닌가.

“게이밍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란 양면성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은 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다. 실적이 부진했으면 ‘비전문가’가 와서 영업이 안좋다’라고 비난할텐데 그것은 피한 것 같다.”

-부임 첫째 영업실적이 좋은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 본다면

“카지노 외에 여름 골프, 겨울 스키 등 즐길거리가 단순히 아가자기한 레저 아이템을 많이 발굴했다. 그 결과 30시간이던 고객들의 평균 체류시간이 지난해 38시간으로 늘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객실, 식음료 같은 비카지노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때 객장 열감지기 설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로 매출 감소가 별로 없었다”



“CEO가 아닌 리조트 방문객의 입장에서 하루 더 머물고, 내년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했다.”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는 부임 1년 만에 영업실적과 조직 청렴도에서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지역사회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marineboy@donga.com

-영업실적 못지않게 반부패 시책평가에서도 등급이 크게 올랐다.

“취임 전 이곳에 가는 것이 평생 살아온 내 이미지와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했다. 무난한 조직에 있기보다 오히려 개선할 부분이 많은 곳이 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렴도가 높아진 점이 기분이 좋다. 문제가 여전하다면 ‘함승희가 가도 별 수 없네’라는 반응이 나왔을텐데...”

-조직문화에서 어떤 점을 바꾸려 했다.

“역시 인사다. A가 갈 자리에 B가 가면, B는 그 자리에 보내준 사람과 연결되어 업자나 아랫사람을 챙겨주는 연쇄적인 부정이 발생한다. 그런 문화를 잡으려 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1년 동안 하나 해결하고 며칠 쉬려나 싶으면 다음날 또 다른 일이 생겼다(웃음)”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처음에 기독교 농지는 것만 집착해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반대하는 사람은 노조든, 지역

함승희 대표는

▲강원 양양 출신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1982~1992년 서울·제주·수원 검찰청 검사 ▲1992년 대검 중앙수사부 고등검찰관 ▲1993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1996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2000년 16대 국회의원 ▲2005년 미국 조지타운 대방문고수 ▲2014년 11월 강원랜드 대표이사 부임

주민 대표든 모두 만나거나 찾아갔다. ‘나는 연봉 받는 사람으로 있다가 간다. 이 돈을 아끼면 결국 주인인 당시 몫이 되는데 왜 반대하는가’라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했다.”

-지역사회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직원이나 지역주민 대부분 강원랜드의 고객이 지역에 내려가 밥을 사먹고, 물건을 사야 지역경제가 큰다는 생각을 17년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정선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중에서 강원랜드를 놀러가 돈을 쓰는 것이 맞는 순환이다.”

-올해 도시재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구성해 4월쯤 이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마츠꾸리(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관계자들과 세미나를 열고 이후 지역주민 현지시찰과 홍보 등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이 강원랜드의 미래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카지노의 설립 근거인 폐광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이면 끝난다. 앞으로 10년간 노력해 태백과 고한이 아름답게 변하고, 강원랜드가 친환경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산악형휴양리조트가 되고, 또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동원탄자 수직갱 같은 관광콘텐츠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자. 폐광법을 통해 도시가 살기 좋게 바뀌었으니 연장을 주장할 명분이 선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한국 찾는 세계 최고의 맛

호텔업계, 미술쟁 스타 셰프 초청 잇따라

레스토랑 평가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미술쟁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글로벌 ‘스타 셰프’의 방한 이벤트가 줄을 잇고 있다.

JW메리어트 강남은 28일까지 일본 타카기 카즈오 셰프를 초청해 일식당 ‘미도리’에서 ‘겨울에서 봄으로’라는 테마로 요리를 선보인다. 타카기 카즈오 셰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사카의 ‘교리리 타카’와 고베의 ‘코우지루’로 각각 미술쟁 2스타와 1스타를 받았다.

3월14일에는 서울 웨스틴조선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키아 에 누보’에서 미국 뉴욕의 미술쟁 1스타 레스토랑 ‘아이 피오리’의 PJ칼라와 셰프, 밥트루잇 패스트리 셰프, 라파엘 긴스브르크 소믈리에가 방한해 갈라 디너를 진행한다. 웨스틴조선 일식당 ‘스시조’에서도 3월25일 교토 ‘기온 사사키’의 오너셰프 히로시 사사키의 갈라디너가 열린다.

롯데호텔서울은 일본과 홍콩에서 각각 미술쟁 2스타 셰프를 초청한다. 중식당 도림에서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광동요리 전문점 홍콩 ‘선통록’의 셰프가 방한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는 메이지 시대에 개업한 도쿄 ‘하마다야’의 셰프를 초청해 가이세키 요리를 선보인다.

김재범 전문기자



광양매화축제

기차여행과 봄꽃이 만났다

코레일, 광양매화축제 등 테마상품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은 봄철 기차 테마여행 ‘봄꽃 따라 달리는 봄 마중 여행’을 론칭했다. 광양매화축제, 구례산수유꽃축제, 진해군항제를 테마로 한 상품으로 장소에 따라 당일과 1박2일 여정으로 운영한다.

3월18일부터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기차여행은 청매실농원, 광양매화축제, 남원 관한루원을 각각 즐길 수 있는 당일 코스 상품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광양매화축제는 매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남의 대표축제이다. 3월19일부터 열리는 구례산수유꽃축제 상품은 서울역에서 6시50분에 출발하여 남원역 도착한 뒤 축제 자유 관광과 남원 일대를 둘러보는 당일 코스다. 4월1일부터 열리는 진해군항제 기차여행은 오전에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한 뒤 남포동 관광을 즐기고, 다음날 진해군항제를 찾아가는 1박2일 여정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오늘부터 ‘세계명상대전’, 큰 스님들 한 자리에

25일부터 3박4일간 하이원리조트 일원에서 열리는 ‘2016세계명상대전’은 비(非)카지노 분야, 특히 MICE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강원랜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국제행사다.

호주 아잔브람, 태국 아잔간하, 대만 심도, 한국 해국 등 세계적인 명상스승 네 명이 참석하는 ‘2016세계명상대전’은 국내외에서

연인원 40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명 중 태국 아잔간하 스님은 45년 동안 신문 TV 등의 언론과 접하지 않은 은둔 수행자로 ‘2016세계명상대전’에서 은둔수행 48년 만에 처음 미디어 앞에 선다. 대만의 심도선사는 대만 영취산불교 교단의 선원장으로 그가 매년 개최하는 수

강원랜드, MICE 육성전략 결실

륙제에 7만여명의 불자가 운집한다. 한국의 해국 큰스님은 중추 석종사 선원과 제주 남국선원 선원장으로서 한국 불교의 선 수행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선승이다. 호주 아잔브람 스님은 케임브리지대학 물리학도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고승 아잔 차의 수제자로 2013년과 2014년 방한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번 ‘2016 세계명상대전’에서는 26일 열리는 ‘무차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국 아잔간하, 호주 아잔브람, 한국 해국 등 큰스님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개개인이 터득하는 명상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마련한 수행참여명상 심포지엄이다.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는 “명상대전은 우리의 우수한 컨벤션 시설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QUICK DELIVERY(빠른배달)

MOMMY COOK HOME SERVICE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100% 수제 리얼버거

마마모짜렐라치즈버거

성공한다 전해라!

2016 마미쿠크를 만나면

마미쿠크만의 특별함으로 도전하십시오!

마미쿠크 본사만의 강력한 성공 경쟁력

- ✓ 색다른 맛과 지속적인 메뉴 개발
- ✓ 수제 버거만의 참맛을 내는 마미쿠크만의 기술력
- ✓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과학적 조리 메뉴얼
- ✓ 창업연구 지원센터의 끊임없는 연구
- ✓ CVO 위생물류시스템으로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성공을 위한 마미쿠크 버거카페의 “핵심 창업 포인트”

- ✓ 밀레니엄 세대까지도 좋아하는 편안한 인테리어로 분위기 업!
- ✓ 까다로운 엄마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색다르고 깔끔한 메뉴구성!
- ✓ 아시아 대표 면요리 추가로 낮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테이블!
- ✓ 고급 카페음료 메뉴구성으로 매출은 덤!

착한창업 Care & Cure

창업 마스터가 달려갑니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라면 전국 방방곡곡 언제나 상권과 권리금 분석, 시장조사, 창업지원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가맹문의 **1899-3117**